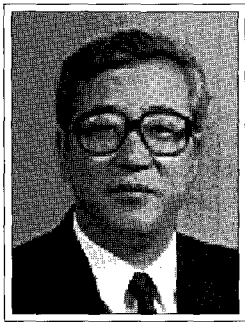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구축 현황 및 발전 방향

김 효 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술연구부장



원자력은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대안으로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31개 국가에서 432기의 상업용 원전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 세계 전력의 17%를 공급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현재 18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어 전체 전기 수요의 40% 이상을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원자력의 이용은 활성화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반 대중에

게 원자력은 안전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에너지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례로서, 최근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의 부지 선정 과정에서 야기된 혼란은 원자력 사업이 국민의 이해와 수용성이 없으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원자력 이용의 필요성과 국민 수용성의 괴리는 무엇보다도 원자력 안전을 바라보는 서로의 시각의 차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상당한 부분이 국민들에 대한 정보 제공의 부족과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할 경우에도 정보 접근의 어려움, 상호 의사 소통의 부재 등에 기인한다.

따라서 원자력 안전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의 확인 과정에서 신속하고 투명한 안전 정보 공개가 선행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국민들의 적

극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의 신뢰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원자력 안전의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를 설치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공개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의 활동과 발전 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내외 정보 공개 현황

1. 국내 정보 공개 현황

정보 공개 제도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에게 보장하는 한편, 이러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의무를 정부 등 공공 기관에게 부여하는 제도를 뜻한다.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



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보 공개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 법률은 국민들이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들을 규정하는 소극적인 정보 공개 성격을 띄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원자력 안전 규제 기관인 과학기술부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대국민 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의 일환으로 1998년 11월 「원전사고·고장정보공개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지침에서는 신속한 정보 공개가 요구되는 방사선 비상에 경우에는 30분 이내에, 방사성 물질의 화재·분실·도난 등 중요한 사고·고장에 대하여는 4시간 이내에 사업자는 사실 위주로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언론 공개와 함께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 사고·고장에 대하여 안전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방사선의 위해 정도, 국민의 관심도 등에 따라 언론 공개 대상과 인터넷 공개 대상으로 구분하여 해당 시간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원자력 시설로부터 사고·고장 보

고서를 접수받으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고·고장 평가 척도인 국제원자력 사건 등급(INES)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이 평가 결과를 언론 및 인터넷에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사고의 심각성 정도와 이에 대한 규제 기관의 대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 안전 규제 업무 시스템을 통하여 분석된 원전 운전 현황 및 성능 지표와 사고·고장 정보, 실시간 전국토 환경 방사선량률 정보, 방사선 작업 종사자 및 방사성 동위원소 안전 정보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과학기술부는 원자력 안전백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도 원자력 안전 규제 활동을 포함하는 연보를 발간하여 국회,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한편, 원자력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운전 현황 자료와 주변 지역 방사선량에 관한 자료, 원자로 정지 등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 발전량, 원자력 이용률 등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사항들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원전이 위치한 각 부지별로 자체적인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당 원전의 운전, 방사선 관리, 온배수 정보 등을 주변 지역 주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고 있다.

한전원자력연료(주)는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경수로 및 중수로 핵연료 제조 공정, 방사선 관리, 환경 보전 등의 핵연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원자력환경기술원은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처분 시설의 설계 기준, 환경 영향, 폐기물 처리 및 처분 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원자력연구소·한전전력연구원·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한국원자력문화재단·한국원자력산업회의·한국원자력학회·대한방사선방어학회·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등에서 자체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원자력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2. 외국 정보 공개 현황

민주주의와 정보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미국·스웨덴·프랑스 등 12개 선진 외국에서 제정되어 운영중이다. 그 내용은 각 국가의 정치 제도나 사회 여건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 나라의 정보공개법과 유사한 면을 갖고 있다.

미국의 원자력 규제 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서는 정보 공개 규정인 10CFR Part 9, Subpart A(Freedom of Information Act Regulation)에 근거하여 NRC에

공개자료실(PDR)을 설치하여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개 자료를 검색·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시스템(ADAMS)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공개 정보 자료로는 현행 원자력 관련 법령, 기술기준, 규제 지침 등의 제·개정 관련 사항과 원자력 시설의 인허가 관련 문서 및 보고서, 원자력 사고 및 안전 현안을 포함하는 원자력 시설의 운영 현황 및 원전의 성능 지표, NRC 내부 및 원전 주변 주민과의 회의 자료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캐나다는 1982년 정보 공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행정 정보를 비교적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는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CNSC)에서 원자력 또는 방사성 물질과 관련된 현안 발생시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언론 및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프랑스는 체르노빌 사고 이후 원자력규제기관(DGSRN)이 보건성과 합동으로 원자력 정보 시스템(MAGNUC)를 구축하여, 원자력 시설 정보, 원전 운영 정보, 원전 사고·고장 정보, 전국토 환경 방사

능 정보, 방사선/능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일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에 원자력공개자료센터를 설치하여 공개자료실과 인터넷을 통하여 원자력 시설 인허가 신청 자료, 원자력 안전위원회 및 원자력위원회 관련 자료, 원전 사고·고장 정보, 원자력 관련 법령, 원자력 관련 보고서 등을 공개하고 있다.

경제통산성(METI)에서는 원자력발전기구(NUPEC) 산하의 원자력안전정보연구센터(NUSIRC)에 위탁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인허가 자료, 원전 사고·고장 정보, 운전 보수 등을 포함하는 원자력 발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분석·평가 후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구축

1. 배경 및 목적

원자력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고조와 정보 공개 요구 증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2002년 초 과학기술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 추진의 일환으로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설치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 11월에 원자력 안전 규제 전문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가 설치되었다. 2003년

6월에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을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 사이버시스템(<http://nsic.kins.re.kr>)을 구축·개통하였으며, 일반인들이 정보 공개 센터를 방문하여 원자력 안전 정보의 수집·분석·처리·저장·공개에 대한 진행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홍보전시관을 설치하였다.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손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이용자 편의적인 정보 공개의 활성화 공간을 구축하고, 원자력 안전 규제 기관과 국민이 서로 투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의사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원자력 안전 및 규제에 대한 투명성과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국가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의 설치와 사이버 시스템 개통은 그동안 원전 사고·고장 정보 공개, 전국 환경 방사선량 공개, 원전 안전 성능 지표 공개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고자 했던 정신을 보다 승화시켜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상호 신뢰의 접점을 넓히 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2. 설치 현황 및 기능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는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내 7명의 인력으로 전담 조직(정보 공개 담당)을 설치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주요 기능은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 및 안전 규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수집된 정보 자료의 처리·분석 및 평가, 공개 자료의 작성 및 신속한 정보 공개 수행 등이다.

운영 형태로는 안전 정보의 수집·처리·저장·공개를 원자력안전 정보 공개 센터가 전담하고, 안전 정보의 수집·분석·평가는 기존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제 업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전담 조직은 매뉴얼 담당자 지정 및 역할 분담으로 책임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정보 공개 및 지속적 관리·갱신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안전 정보의 체계적인 확보와 신속한 갱신을 보장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 정보 관리 체계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력사업자, 원자력 규제 기관, 국내외 원자력 관련 기관, 외부 정보 시스템 등으로부터 수집된 원자력 안전 정보는 규제 업무 시스템에서의 분석 과정과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의 처리 과정을 거쳐 공개센터의 물리적인 자료실과 사이버상의 데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홍보전시관 개관식

이터 베이스에 저장된다.

저장된 정보는 정보공개자료실과 사이버 공개 시스템을 통하여 일반 국민·원자력 사업자·공공 기관 등에 공개되며, 적극적인 공개의 일환으로 주요한 안전 뉴스를 일주일 단위로 발췌하여 원전 주변의 주민을 포함한 관심자들에게 e-mail을 통하여 직접 전달하고 있다.

3.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 사이버 시스템 구축

최근 정보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제반 사회 분야의 정보는 과거의 물리적인 공간을 통한 전달 체계(off-line)에서 사이버상의 공간을 이용한 체계(on-line)로 전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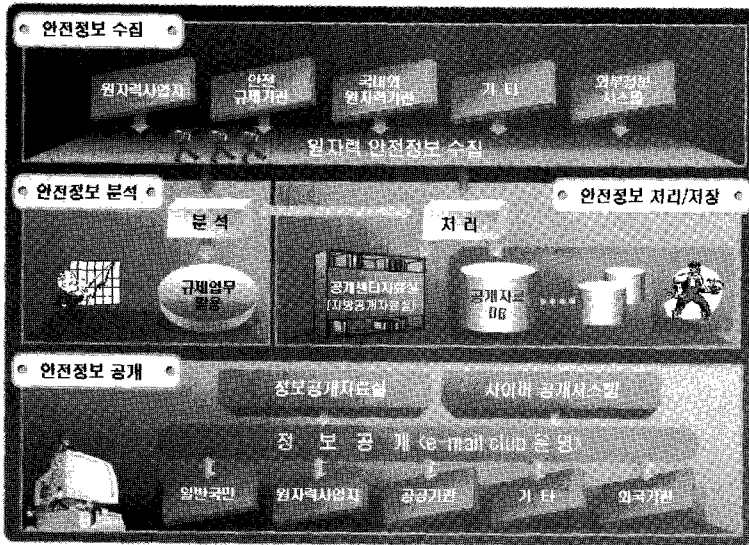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방대한 정보의 검색이 가능하게 되고 언제 어디서나 정보의 접근이 용이함에 따라,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증대되고

공공 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가 한층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여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에서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공개하고 원자력 안전에 대해 다양한 계층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기존의 물리적 공간을 이용한 정보 공개 체계와 병행하여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 사이버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그림 2).

가. 사이버 시스템의 구성

정보 공개 사이버 시스템은 원자력 시설의 안전 정보 등 10개의 주메뉴와 정보공개센터 안내, 원자력 안전 관련 회의 안내, 참고자료실, 원자력 관련 기사 정보, 게시판 등 6개의 부메뉴, 최신의 안전 뉴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원자력 안전 뉴스와 공지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원자력 안전 정보 관리 체계도



〈그림 2〉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 사이버 시스템 구성도

또한 원자력 안전 현안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이라이트 정보와 안전 규제 업무에 활용되고 있는 규제 업무 시스템 등 관련 링크를 포함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 사이버 시스템의 초기 화면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나. 주메뉴의 구성
안전 정보의 핵심인 주메뉴를 살펴보면, 우선 [원자력시설안전정보]에서는 안전 규제 대상이 되는 원자력발전소,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주기 시설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에 대한 안전 심사, 안전 검사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현재 원자로 출력과 운전 상태에 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20초 주기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각 원전의 주요 성능 지표를 구분하여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자력시설사고·고장정보]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른 국내외 원자력 시설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고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발생한 사건 등의 전체 현황과 특정 사건을 선택하면 사건·사고 발생 원전의 상태와 그 내용을 상세히 볼 수 있다.

[방사능방재대책정보]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방사선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사선 비상 대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사선 사고시 주민 행동 요령을 시각적으로 보이고 있다.

[환경방사선감시정보]에서는 방사능의 환경 오염 사고를 조기에 탐지하고 적시에 적절한 비상 대응 조치를 강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 방사선 감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국 37개 지역에 설치된 감시망을 통하여 측정된 각 지역에서의 환경 방사선량을 15분 주기로 실시간 제공하고, 또한 해당 지역에서의 최근 7일간의 선량을 변



(그림 3)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 사이버 시스템 초기 화면(<http://nsic.kins.re.kr>)

가지는 주요 안전 정보들을 초기 화면에서 한번의 클릭으로 볼 수 있도록 하이라이트로 묶어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즉, 이미 주메뉴에 포함되어 있는 원전 출력 정보, 원전 주간 운영 현황, 원전 안전 성능 지표, 전국토 환경 방사 선량률 등의 실시간 안전 정보와 주요 안전 현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초기 화면의 하단에는 최신의 안전 뉴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원자력 안전 뉴스와 공지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화 추이를 제공하고 있다.

[방사성동위원소안전정보]에서는 안전한 동위원소 이용을 위한 핵종 정보, 방사선 사고 정보, 사고 유형별 비상 조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방사선 사고 정보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전체 현황과 함께 각 사고 항목별로 사고 내용, 원인, 사고 조치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상세 내용은 별도의 파일로 제공하기도 한다.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정보]에서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사자 기록 관리를 포함한 선량 범위별 작업 종사자 분포,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업종별 종사자 수와 평균 피폭 선량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원자력안전현안정보]에서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하여 사회적 현안

이 되었던 주요 사건·사고들에 대하여 발생시부터의 진행 상황에 대한 제반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원자력관련위원회정보]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전문위원회 및 5개 전문 분과의 구성과 임무, 회의내용과 회의 안건 및 결과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연구정보]에서는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구되고 있는 안전 연구 결과 보고서의 원문을 공개하고 있다.

[원자력관계법령정보]에서는 원자력법을 포함한 원자력법령 전반에 대한 전문을 제공하고 있다.

메뉴별 주요 공개 정보 내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다. 부메뉴의 구성 초기 화면의 우측에 있는 {하이라이트정보}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운영 현황 및 발전 방향

1. 운영 현황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한편, 시민 참여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정보 공개 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를 위한 e-mail club을 운영하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안전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Public Communicator를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성을 강조한 정보 제공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또한 정보 공개의 취지와 정보 공개 사항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원전

〈표〉 사이버 시스템 메뉴별 주요 공개 정보

메뉴	공개 정보
원자력시설안전정보	- 원자력시설의 안전 심사/검사 정보 - 원전 현재 출력/운전 상태 및 주요 성능 지표
원자력시설사고·고장정보	- 국내·외 원자력 시설의 사고·고장 정보 - 사고·고장등급평가위원회 회의 자료
방사능방재대책정보	- 방사선 비상 대책에 관한 정보 - 방사선 사고시 주민 행동 요령
환경방사선감시정보	- 전국 37개 지역 환경 방사선량률 - 해당 지역의 최근 7일간의 선량을 변화 추이
방사성동위원소 안전정보	- 동위원소 이용을 위한 핵종 정보 - 방사선 사고 정보 및 사고 유형별 비상 조치 정보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정보	- 작업 종사자 기록 관리 및 선량 범위별 분포 - 업종별 작업 종사자 수와 평균 피폭 선량 통계
원자력안전현안정보	- 주요 사건·사고의 진행 상황
원자력관련위원회정보	-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구성과 임무 - 회의 내용, 회의 인건 및 결과
원자력안전연구정보	- 안전 연구 결과 보고서 원문
원자력관계법령정보	- 원자력 관련 법령 전문
(부 메뉴)	- 정보공개센터 안내, 원자력 안전 관련 회의 안내
	- 참고자료실, 원자력 관련 기사 정보 및 게시판
	- 원자력 안전 뉴스 및 공지 사항
	- 원자력 안전 현안 하이라이트 정보

지역 주민 시연회, 원자력 안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심포지엄, 원자력 안전의 날 정책 토론회 등에서 정보 공개의 취지와 방향을 소개하고 사이버 시스템을 시연함으로써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 원자력안전정보공개 운영위원회
원자력안전정보공개 운영위원회는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정부·원전지역단체·NGO·언론계·학계·원자력 산업계 등 각계의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원자력 안전 정보의 수집·관리·공개와 정보 공개 관련 규정의 제·개정, 정보 공개 계획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2003년 11월 7일 운영위원회의 발족 회의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원자력안전정보공개 규정(안)과 정보공개센터의 발전 방향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나. 정보 공개 모니터 제도

정보 공개의 신속성·정확성·충실도에 대한 외부 감시와 시민 참여 네트워크를 통한 양방향 의사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공개에 대한 시민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 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모니터 요원은 국회·원전 지역 주민·원전 지역 지자체·NGO·언론계·학계·원자력 관련 기관 등 각계의 관심자들을 중심으로 현재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모니터 요원들은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센터 홈페이지 내용의 전반적 사항을 대상으로 공개 정보의 신속성·정확성·충실도에 대하여 감시하고, 홈페이지 오류 사항 및 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2003년 9월 24일에는 모니터 요원 발족 회의가 개최되어 정보 공개센터 홈페이지 및 모니터 방법에 대한 설명과 정보 공개 업무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 논의되었다. 참고로, 모니터 요원이 아니라도 누구나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통하여 의견을 개선할 수 있다.

다. e-mail club 운영

e-mail club은 원자력 안전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보 수요자에게 전자 메일(e-mail)을 통해 최신의 안전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 사이버 모니터 요원 발족 회의

e-mail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원자력 시설 안전 정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안전 정보, 원자력 안전 관련 정책 동향 및 행사 정보 등으로, 일주일 단위로(매주 화요일) 제공되고 있다.

현재 국회·정부·원전 지역 지자체 및 관련 단체, 원전 지역 주민을 포함한 일반인, 언론인, NGO, 학계 등을 중심으로 약 600여명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라. 시연회 개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의 취지와 정보 공개 사항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2003년 8월 26일과 27일에는 울진 지역과 고리 지역에서, 9월 22일에는 월성 지역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시연 내용은 원자력안전정

보공개센터 활동 및 홈페이지 소개 등이었으며, e-mail 클럽 회원 및 모니터 요원 확보 등의 활동이 있었다.

또한 2003년 4월 17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개최된 원자력 안전의 사회적 수용성 심포지엄과 2003년 9월 4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제9회 원자력안전의 날 정책 토론회에서도 원자력안전 정보공개센터의 현황 및 정보 공개 방향을 소개하고 정보 공개 홈페이지의 시연을 통하여 원자력 안전 정보의 적극적인 대국민 공개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2. 발전 방향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는 원자력 안전 정보의 포털 사이트 기능 수행, 국민 참여적 이용자 편의의

정보 공개 체계 구축, 그리고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의 신속성·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 사이버 시스템의 기능 확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가. 사이버 시스템 기능 확대

우선적으로 정보 공개 사이버 시스템의 기능 및 내용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KINS에서 운영중인 규제 업무 시스템에서 정보 공개가 가능한 부분은 정보 공개센터 홈페이지로 통합하여 안전 정보 종합 창구를 구축하고, 제반 안전 활동에서 생산되는 광범위한 안전 정보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로 구성하여 안전 정보의 전자 도서관을 구축할 계획이다.

원자력 및 방사선과 관련된 사고·사건 발생시 그 내용을 신속하게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속보 시스템을 개발(Pop-up 창 등)하여 재난 대비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지자체·원자력 사업자 등 관련 기관들과 정보 유통 채널 및 정보 교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나. 정보 공개의 다양화 및 영상화 추구

정보 공개의 다양화 및 영상화를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 홈페이지 고리 원전 지역 시연회

추구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사고·고장등급평가위원회 등의 회의 진행 사항을 포함하는 주요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행사들을 동영상 형태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원자력 안전 활동의 이미지 자료를 제공하는 등 동영상 및 오디오 Webcasting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제반 안전 정보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 및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원자력용어집」을 개발하고, 초·중·고생들에게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원자력 안전 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다. 정보 공개의 접근점 강화

원자력 안전 정보의 보다 적극적인 공개를 위하여 e-mail club 회

원을 최대한 확대하고 제공되는 안전 정보의 범위를 더욱 확장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웹진(webzine) 형태로 전환할 계획이며, e-mail 이 없는 원전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주단위로 인쇄물 형태로도 안전 뉴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원전 지역 주민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의 원자력 안전 정보에 대한 접근점 강화를 위하여 원전지역 지자체 및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예정인 원전현장 방사능방재지휘센터와 일반인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정보 검색 장비와 홍보 전시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전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주기적인 시연회를 개최하고, 각종 행사 등에서 정보공개센터 활동에 대한 홍보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맺음말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원자력계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해 증진을 위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 정보를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원자력 안전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는 원자력 안전의 투명성 확보와 대국민 신뢰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정보 공개가 단순히 국민을 교육하고 이해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정보의 공개에서 원자력계가 주고 싶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도록 제공하는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환경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이용자 편의의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를 추진할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가 설치되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있지만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함께 하는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정착에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